

수석부회장 후보  
이름 : 이경창

## 후보자 이력 및 학회활동

### 1. 인적사항

성 명 : 이경창  
출생연도 : 1971. 5. 1  
근 무 처 : 부경대학교  
연 락 처 : 010-4214-8743  
E-Mail : gclee@pknu.ac.kr



### 2. 학 력

1998. 03 - 2003. 02 부산대학교 지능기계공학과 공학박사  
1996. 03 - 1998. 02 부산대학교 생산기계공학과 공학석사  
1989. 03 - 1996. 02 부산대학교 생산기계공학과 공학사

### 3. 한국기계가공학회 활동

2021 - 현재 부편집위원장  
2019 - 현재 부회장  
2015 - 2018 편집이사

### 4. 한국기계가공학회 외 활동

2005 - 현재 부경대학교 제어계측공학전공 교수  
2014 - 2015 부경대학교 교수회 사업이사  
2016 - 2018 부경대학교 교무부처장  
2020 - 현재 부경대학교 스마트제조로봇융합연구소 소장  
2020 - 현재 4단계 BK21 스마트로봇융합응용교육연구단 단장  
2021 - 현재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단(지능형로봇분야) 단장

2013 - 현재 한국정밀공학회 평의원  
2020 - 2023 한국정밀공학회 이사  
2024 - 현재 한국정밀공학회 감사

2008 제어로봇시스템학회 이사  
2017 - 현재 제어로봇시스템학회 평의원  
2020 - 현재 제어로봇시스템학회 이사  
2021 - 현재 제어로봇시스템학회 부산울산경남지부 지부장

2016 - 2017 한국생산제조학회 로봇및자동화부문 위원장  
2020 - 2021 한국생산제조학회 로봇및자동화부문 위원장

2016 - 2021 한국산업융합학회 편집위원장  
2016 - 2024 한국산업융합학회 부회장

2023 - 현재 한국연구재단 전문위원(RB, 자동화계측분야)

## **5. 수 상**

### **1) 한국기계가공학회**

2016. 7 과학기술우수논문상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2) 한국기계가공학회 외**

2008. 10 권옥현젊은과학자논문상 (제어로봇시스템학회)

2010. 12 젊은과학자상 (부경대학교)

2022. 03 표창장 (부산광역시)

## **6. 연구분야**

자율제조(autonomous manufacturing), 임베디드시스템(embedded system)

머신 비전 및 머신 러닝(machine vision and machine learning)

고장 예지(failure prognostics), 협업지능(collaborative intelligence)

## **7. 연구실적**

국외학술지 47편 / 국내학술지 78편 / 특허등록 33편

수석부회장 후보  
이름 : 이경창

## 후보자 소견서

이경창(부경대학교, 교수)

안녕하십니까. 한국기계가공학회 회원님 그리고 평의원님. 오늘의 이 자리까지 학회를 위해 헌신해오신 전임회장님 그리고 이사님들.

한국기계가공학회 2025년도 수석부회장에 입후보한 부경대학교 이경창입니다. 이렇게 소견서를 통해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선후배 회원님들께 인사를 올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2014년 봄 친구의 손에 이끌려 안동대학교에서 열렸던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하면서, 우리 학회와 첫 인연을 맺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황송하게도 학회 활동 경험이 일천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편집이사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선배님에 대한 기억도 아직 생생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죄송스럽지만, 당시에는 우리 학회가 오늘날의 위상을 쟁취할 것이라는 건 꿈에도 생각 못했었습니다. 다만, 선후배 회원님들과 의기투합하여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학회가 될 것이라는 것만 믿었습니다.

제가 학회에 첫 발을 디딘 이후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때마다 선배님들이 앞장서서 정말 많은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2015년 춘계학술대회가 열렸던 삼천포해상관광호텔은 저에게 아직도 사천의 아름다움을 기억나게 해 주었고, 2016년 ICPMT가 열렸던 몽골은 선후배 회원님과의 절대 끊어지지 않을 동지애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2017년 학술대회가 열렸던 전주대와 공주대는 영남과 호남이 합심하여 영향력있는 학회를 만들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2018년 당시 누구나 가고 싶어했던 여행지인 여수에서 열렸던 춘계학술대회는 기계공학분야 신홍 강자의 탄생을 알리는 자리였습니다. 2019년 연변에서 있었던 ICPMT까지 우리 학회는 선후배 회원님들간의 끈끈한 정으로 이어져 짧은 기간이지만 급성장하는 기계공학분야 신홍 강자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했던 2020년 최악의 상황이었음에도 우리 선배님은 우리 학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정말 존경할만한 혼신의 노력을 보여주셨고, 2021년 가을 제주도 학회 추진이라는 회심의 무기를 꺼내들 수 있는 힘을 비축해 주셨습니다.

2021년 12월 1일은 그동안 축적해 두었던 힘을 한 번에 분출한 기계공학분야 학회 역사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날이었습니다. 선배님과 함께 제주도 학술대회를 기획하면서, 비록 적자가 나더라도 선배님들이 그동안 축적한 자산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며, 후배님들이 도와주시면 금방 회복할 수 있다는 조금은 과도한 자신감에서 시작한 일들이

었지만, 우리 생각을 넘어서는 성공에 감격에 겨워하는 선후배님들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2022년 멋진 사무실에 우리 모두에게 감격을 선사했었고, 2023년 주위에서 부러워했던 제주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의 학술대회는 우리 모두에게 황홀함을 선사했습니다.

이제는 당당히 기계공학분야 3번째 위상을 가진 학회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은 오늘까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회의 발전에 앞장서주신 전임회장님들과 이사님들, 그리고 우리 학회 선후배 회원님들의 공이라 생각합니다.

2025년 2월 발리는 우리에게 또 다른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 자부합니다. 2016년 몽골은 가족 분위기로 시작된 조촐한 행사였지만, 2025년 발리는 가족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가 가문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리는 날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차기 수석부회장이 된다면 차기 회장님을 모시고, 이무기가 용이 되어 하늘을 날 듯, 우리도 그런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첫 차기 수석부회장 선거의 입후보자가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선배 회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위대한 업적을 달성하셨던 전임 회장님들께서 먼저 이런 잔치에 초대되어 그 영광을 누리셔야 했는데, 제가 이런 호사를 누리게 된 점에 대해선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세력이 충만하고 민주주의가 발전한 조직일수록 선거는 축제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만큼 성장했기에, 이제 우리도 그 축제를 즐길 자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가 있기까지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주신 전임회장님과 이사님들, 그리고 선후배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앞으로 우리 후배님들은 선배님들이 이룩하신 업적 위에서 본인의 소신을 마음껏 펼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의 마지막 남은 소명은 우리 학회 업무들의 시스템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회 업무들을 모듈화하고 체계화하며 각 부서별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토론과 공감, 그리고 합의가 성숙되어 있는 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 문화 위에서 후배님들이 본인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일이라 생각합니다.

차기 수석부회장 선거 결과에 무관하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만 하더라도 저에게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이런 자리에 나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모든 분들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 드립니다.

2025년 수석부회장 후보 이경창 배상